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5. 14.(일) 11:00,
(지면) 2023. 5. 15.(월) 조간

배포 2023. 5. 12.(금) 오후

연어류 보존 위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개최

- 각 회원국의 불법어업 감시·과학연구 성과 발표 및 향후 계획 등 논의

해양수산부는 5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‘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*’의 제30차 연례회의를 개최한다.

* 북태평양(북위 33도 이북 공해) 및 인근 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 및 무지개송어의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(회원국: 한국, 미국, 일본, 캐나다, 러시아)

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는 공해에서의 연어류 어획을 금지하며, 각 회원국은 검색선 및 항공기 등을 활용해 연어류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‘항만국 조치 협정*’에 따라 검색을 실시하여 연어류의 불법어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.

*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) 어업 방지를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FAO)가 2009년 11월 채택, 2016년 6월 발효하였으며,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검색, 입항 거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

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어류 관련 과학연구 및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발표하고,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. 회의에는 각국의 불법어업 감독관·검색관, 연어 과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전 세계적인 연어류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, 관련 과학연구와 불법어업 감시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우리나라는 연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 1988년부터 매년 약 1,000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하고 있으며, 올해도 약 1,181만 마리를 방류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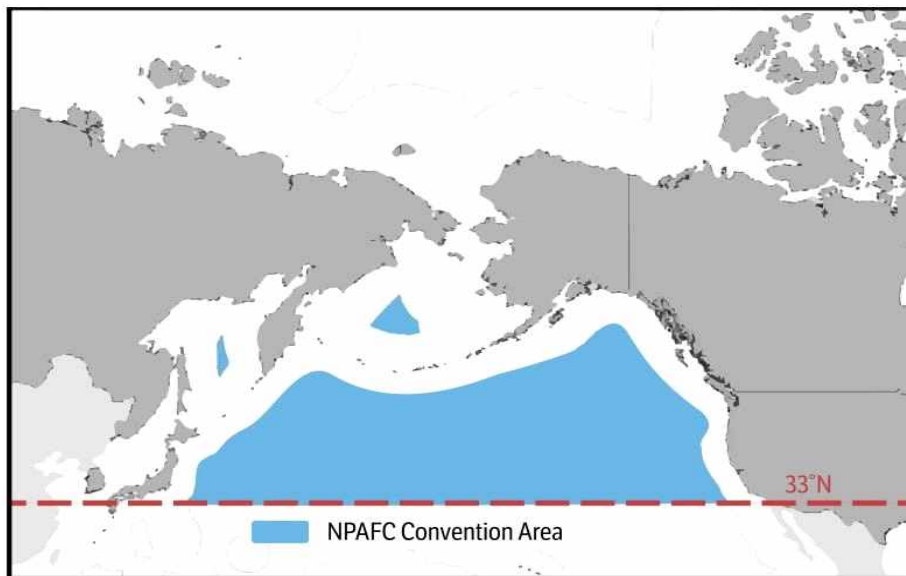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지현 (044-200-5330)
		담당자	주무관	나일강 (044-200-5377)

□ 목 적 : 소하성* 자원의 포획금지 및 자원보존

* 소하성 : 민물에서 산란한 후, 바다로 가서 성장하여 다시 민물로 돌아와 산란하는 성질. 연어가 대표적

□ 일반 현황

- 협약 채택일/발효일 : '92.2.11/'93.2.16(한국은 '03.5.28 가입)
- 사무국장 : Dr. Vladimir Radchenko(러시아)
- 사무국 소재지 : 캐나다 밴쿠버
- 회원국 : **5개국**(한국, 러시아, 미국, 일본, 캐나다)
- 관리어종 : 곱사연어, 연어, 홍연어, 은연어, 왕연어, 시마연어, 송어
- TAC 설정 : 해당사항 없음
 - － 협약수역 내 소하성 자원 포획금지, 단 각국의 EEZ 내 조업 가능
- 분담금(`23년) : CAD 191,018 (약 1억 9천만원, 총 분담금 CAD 955,090)
- 협약수역 : 북위 33도 이북 북태평양 공해수역



*출처 : NPAFC 누리집